

## ■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 심의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0:30~18:30
- 심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실험무대
- 심의위원 : 민새롬, 오세혁, 전강희, 전인철, 한민규(가나다 순)

1. 본 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로 연극분야의 차세대예술가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적 주제의식, 실험성, 예술적 신념, 그리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발전할 작품의 구체적 계획 등을 기준으로 총 71명의 지원자 중 1차, 2차 심의로 극작 2명, 연출 4명을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생들은 3개월간의 준비과정 끝에 이번 중간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중간발표 심의는 이 6명의 연구생의 중간발표로 최종 작품지원금을 결정하는 단계인 만큼 공연기획안과 구성안, 중간발표용 대본(작가부문), 그리고 실연, PT,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2. 전체적으로 중간발표 심의기준은 연구생들의 작품 진척도에 중점을 두었다. 즉, 연구생들이 선정되었을 당시의 초기 기획안과 구성안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더 ‘진척되었는가, 발전되었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중간발표를 준비하는 연구생들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생들이 중간발표 단계까지 무사히 해낸 것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3. 우선 극작분야 2명의 연구생은 중간발표 때 많은 부분 작품이 발전되었다는 것에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다. 이것은 연구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연단계, 시각화 단계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극작분야 두 연구생 모두 중간발표를 함에 있어 작품의 구성과 개성, 그리고 인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고유한 매력이 연출을 만나면서 더 시각화되었다. 이것은 두 작가 연구생들 모두 본인들의 작품을 잘 소통하며 연출할 수 있는 연출가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출가와 소통하는 작업 역시도 잘 이행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발표한 극작 연구생은 인물의 변화지점을 마련하여 더 작품의 매력을 강화했으며 시적언어의 매력이 돋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한 극작 연구생은 신선한 구성과 작품의 리듬과 템포가 매력적이었다. 또한 이 두 명의 극작 연구생은 소수자 서사를 대중들과 만나게 하는 접점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그것이 무대 위에 여지없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발표 결과 두 극작 연구생 모두 최종지원금을 극작 분야 최대치인 1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 전원 동의하였다.

4. 연출분야 4명의 연구생은 전체적으로 작품의 진행도가 달랐다.

4.1. 연출분야 첫 번째 발표자는 초기 구성안의 내용과 많은 부분 달라졌다. 관객 참여를 통한 실험적 연출이 돋보였으나 관객에 따라 작품이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품의 본질을 강화할 발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4.2. 연출분야 두 번째 발표자는 ‘드랙’ 퍼포먼스가 돋보였다. 나아가 ‘드랙’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젠더적 시각을 관통할 날카로운 동시대적 주제도 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부분을 놓고 보았을 시 이 드랙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연극화가 될 것이냐, 어떻게 연극으로 구축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4.3. 연출분야 세 번째 발표자는 연구를 더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작품의 ‘페이크뉴스’라는 현상의 본질을 접근하는 학술적 영역은 강화되는 대신, 예술적 관점이 도출되어야 하는 창작 영역의 방향검토 및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중간발표 이후, 작품이 구현될 수 있는 본격적인 창작, 제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4 연출분야 네 번째 발표자는 실연에 관한 준비가 충실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시각화가 잘 이루어졌고 작품의 콘셉트를 알 수 있었다. 중간발표 결과 모호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여 긍정적 변화가 보였다. 하지만 본 작품의 흥미로운 소재와 주제, 시각적 부분의 완성도에 비해 아직 형식과 서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작품을 선명하게 하려면 이야기의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5. 그리하여 연출연구생 4명은 각각의 연출의 진척도에 따라 2명의 연구생은 최종지원금 2천 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명의 연구생은 최종지원금 2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6. 본 사업의 연구생들은 각각 흥미로운 주제의식과 저마다의 뚜렷한 예술관을 갖고 있으며 실험적 측면, 그리고 새로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본인들의 예술 결과물이 잘 나타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구생들은 본격적으로 관객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특징점 중 하나는 연구생들이 3월에 선정되며 12월에 최종발표를 하는 만큼 최종발표까지 9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작품 준비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중간발표단계까지의 지원과 작품의 제작비 지원, 나아가 멘토링 등 예술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있는 만큼, 연구생들은 남은 시간 책임감을 갖고 더 치열하게 예술적 성장을 하여 관객을 만나길 바란다.

202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